

# 실손보험 할증제, 은행도 배달플랫폼, 주말 低利 대출

〈영세가맹점〉

## 금융산업 혁신정책

영세가맹점, 주말 자금조달 어려워  
음주운전·뺑소니 운전자부담 확대  
고가차, 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병원 자주가면 보험료 많이 내도록

앞으로 주말에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으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며, 은행도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에

**금융산업 혁신정책 주요 내용**

- 1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등 저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시행(2020년 상반기)
  - 현행 카드대금 지급: 결제일+2영업일
  - 개선: 목·금·토 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상환(대출기간 1~3일)
  -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추진(2020년 10월)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2020년 1분기)
  -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마련(2020년 2분기)
  -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2020년 2분기)
- 2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규제 합리화
  - 스몰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방안 마련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실시 및 평가방식 개선
  -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 검토
  -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지원(2020년 상반기) 등
- 3 가계·부동산 자금흐름을 기업부으로의 전환 등 자본규제 개선, 혁신창업기업 투자 유도완화 및 영업규제 합리화
- 4 금융산업 책임성 강화: 고객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지속 추진
- 5 건전성 관리 강화: 건전성제도 지속 개선, 국내 금융산업 특성 감안한 세부방안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대해 카드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 대출을 시작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준다. 영업일에만 지급하다보니 영세가

맹점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주말대출 시행으로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에 따라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은 약 211만2000개다.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한다.

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의 영세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방안도 마련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이륜차에 대한 자기 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은 강화하고,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구조도 개편한다.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며,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기부담률은 가입상품에 따라 10~30%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보험은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 하는 형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이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바꾼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며,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한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작년 해외투자 3200억弗 '사상최대'

### 한은 '외화증권 투자 동향'

외국 채권, 주식투자 수요 지속 영향

지난해 국내 기관투자가가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32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 채권, 주식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며 해외 주식 투자, 해외 채권 투자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9년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3263억달러로 1년 전보다 607억달러(22.9%) 증가했다.

이는 잔액 기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17년 699억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기관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외국 채권과 주식 투자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다.

외국 주식 투자 잔액은 1067억2000만달러로 1년 전(790억5000만달러)보다 276억7000만달러(35.0%) 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폭은 2007년 599억달러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이자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는 지난해 미국(22.3%), 유럽연합(EU)(24.8%), 중국(10.3%), 일본(18.2%) 등 주요국 주가가 상승한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자산운용사가 외국 주식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249억7000만달러 늘려 증가세를 견인했다. 보험사는 16억7000만달러, 외국환은행은 5억8000만달러, 증권사는 4억6000만달러씩 증가했다.

외국 채권 투자 잔액도 1772억4000만달러로 전년(1451억3000만달러) 대비 321억달러(22.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2017년 393억5000만달러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이자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금리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의 외국 채권 투자는 전년보다 228억6000만달러, 보험사는 52억9000만달러, 외국환은행은 23억달러, 증권사는 16억7000만달러 늘었다.

코리안페이퍼(Korean Paper·한국물) 투자 잔액은 423억5000만달러로 증권사(+21억달러)를 중심으로 9억4000만달러(2.3%) 늘었다. 코리안페이퍼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이다.

/김희주 기자 hj89@



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성규 하나은행장(왼쪽 첫번째),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사 최고경영자(CEO) 및 그룹장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

## 하나금융, 코로나19 피해 中企돕기 '한뜻'

소상공인 비대면대출 만기 자동연장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서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신속하게 적극 실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장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후 하나금융 관계사 최고경영자(CEO)와 그룹장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CEO부터 솔선수범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 피해 기

업과 개인 및 지역사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그룹 내 전직원이 동참해서 하나금융의 미션을 제대로 발휘할 때"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이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자"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北 수출 효자 광물, 경제 파급효과 제한적

### 한은 식료품,연료 등 중간재 수입 증가

대북제재 이전 북한의 대외수출 1위 품목인 광물 수출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설비투자 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2017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거해 해당 품목의 수출이 전면금지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외수출 1위 품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다.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9년 중 북한의 대(對)중국 분기별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세부 수입 품목간 장단기 관계 등을 분석했다. 주로 수입이 이뤄진 자본재류 중간재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컨베이어 벨트 등이다.

분석 결과 북한의 광물 수출이 증가할 때 장기적으로 식료품과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다. 광물 수출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식료품, 연료 수입에 사용됐을 뿐 아니라 자본재 관련 중간재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쳐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이후에는 운송장비 차량 등 자본재와 섬유류류 원·부자재, 비료 등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다. 북한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여객·화물·운송 부분의 서비스 수요 증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에서 지난 2월 28일 촬영,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자본재류 중간재 수입은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차량 수입은 북한 경제의 병목 중 하나인 수출 부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재 중 일반기기, 기계장치 등 설비자산과 연관된 기계류 수입에는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 BNK경남銀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 할인을 개정

BNK경남은행이 고객들의 효율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 할인을 확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년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는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2차년도는 10%, 3차년도는 12%, 4차년도 이후는 15%의 할인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 할인을 확대 개정함에 따라 4차년도에서 6차년도는 15%, 7차년도에서 9차년도는 18%, 10차년도 이후는 20%의 수수료 할인이

적용된다. 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도 다음 수수료계산일로부터 계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수수료 할인을 20%가 적용된다.

강종대 신탁사업단장은 "100세 시대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IRP 가입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고객의 자산형성과 노후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